

나주시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체결

“치매 취약계층 발굴 지원 위해 앞장”...복지 연계 시스템 강화도

(주)농심과 함께 화재감지기 1020개, 나주시치매안심센터에 지원

나주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가 최근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치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치매안심센터는 나주시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자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사업 연계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주)농심과 함께 화재감지기 1020개를 나주시치매안심센터에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원받은 화재경보기를 나

주시소방서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 200가구, 그리고 치매 고위험군 635가구에 설치·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EBS ‘나눔 0700’ 프로그램에 방송된 나주시 치매 부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생계지원 등을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좋은 이웃들’ 사업의 복지기금을 도움이 필요한 치매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에도 서로 뜻을 모았다.

홍철식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나주시 치매환자 관리율이 우수한 이유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있다”

면서 “이번 협약이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치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좀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적절한 자원은 연계했는지, 인·물적 자원은 충분하지 등을 적극 검토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치매관리를 전국 1위를 달성한 나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과 치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검진 전수조사, 치매환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이다.

치매 관련 문의는 나주시치매안심센터(☎ 061-339-4789~4792)

나주=송준표기자

장흥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추진

오늘까지 모바일앱 활용,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진행



장흥군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모

일 앱(워크온)을 활용한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민과 치매환자,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걷기행사는 치매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챌린지가 진행되는 15일간 목표 걸음 수 13만보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주 광산구, 차상위 데이터로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차상위장애인 1,018명 전수조사, 미신청 세대 복지 정보 안내

광주 광산구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차상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이 다층화하

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유사한 차상위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장애인 1,018명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주거급여 미신청 세대에 복지 정보 안내 홍보물을 보내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 적

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현재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1,027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임행택기자

해남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해남군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항문 생식기암 등의 주요 질환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

과가 있으며, 전 세계 122개국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12세 생일이 지난 여성 청소년(2011.1.1.~2012.12.31.) △13~17세 여성 청소년(2006.1.1.~2010.12.31.) △18~26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

(1997.1.1.~2005.12.31.)이다.

2006년생 이하 여성 청소년과 1997년생 이상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3회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정 의료기관 4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HPV백신의 최대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성 경험 및 감염 전 가급적 일찍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